

05/22 한경스터디 발표 자료_황선하

참고자료: <https://youtu.be/nEXKkM-Zeyg>

[의료업계 내의 갈등]

(기반 사건)

2023/05/15(월) 尹,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유력

2023/05/15(월) 尹, 내일 거부권 행사할 듯... 간호사협 파업 시사

2023/05/16(화) 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... 복지부 장관 "의료공백 안된다"

2023/05/18(목) 유명무실해진 비대면진료... 내달부터 초진, 약 배송 대부분 중단

[보건복지의료연대]



- 간호조무사협회, 방사선사협회, 병원협회,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, 응급구조사협회, 의사협회, 임상병리사협회, 치과의사협회, 노인복지중앙회,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, 요양보호사중앙회, 재가노인복지협회,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
-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행동 목적
 - 1)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폐기
 - 2) 간호법 폐기
- 간호법만 반대 (간호조무사, 응급구조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요양보호사)
- 의료법에도 반대 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

[4대악 의료정책]

1) 원격의료 (보건복지 의료연대 vs 비대면 진료 플랫폼)

보건복지 의료연대

- 코로나 3년 동안 (2020~2022) 대형대학병원 환자도 자유로운 비대면 진료 + 처방약 배송

- 병원 인근 약국들의 큰 타격
- 1차 진료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

비대면 진료 플랫폼

- 1차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
- 오진이 우려되지 않거나 취약 계층에 속하는 초진 환자
독감, 간염 등 1~4급 법정 감염병 환자
장애인,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, 도서,산간 지역 등
의료 취약지역에 사는 환자

2) 의대 정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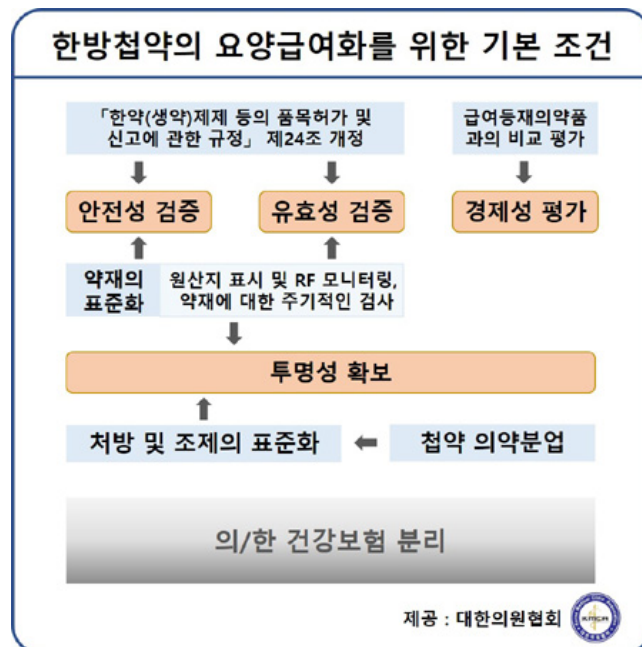
-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
-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대도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크게 늘릴 것
-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 유발

3) 공공의대 설립

- 공공의료와 지역발전이라는 겉포장일 뿐,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

4) 처방 급여화 시범사업 (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)

-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,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에 대해
환자에게 치료용 처방을 처방하면, 건강보험에서 지원
-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, 비용효과성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 무너뜨림
-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도 지출
->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 심해짐



[간호법] -> (보건복지의료연대 vs 간호협회)

-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
- 간호사의 업무 범위, 처우 개선 등 내포

[간호법 거부권 근거]

-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 (직역 간 갈등 유발)
- 간호사의 '단독 개원'으로 의료체계의 근간 흔들릴 것으로 예상
- 정치적 근거
간호단체와의 협상으로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를 줄이려는 의도
추후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(노동조합법 개정안)에 대한 예정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 경감

【현황】

- 보건복지의료연대
간호법 거부권 행사 -> 5월 17일 예정됐던 총파업 취소 (의료법 폐기에 대한 단체행동)
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시위
- 간호협회
간호법 거부권 행사 -> 파업은 아니더라도 단체행동 의사 표출된 상황
- 비대면 진료 (2023~ 제약)
 - 1) 초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불가
 - 2) 약을 택배로 받는 것 금지
->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받거나 환자 대리인이 수령
 - 3) 동네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 가능

【의견】

-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
-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의대 진학 사회적 추세
-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민간인들이 피해
정부가 간호단체와의 협상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원활한 협상과 함께 보건의료 산업에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
-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미래 기술의 발전 중 하나의 분야
-> uber의 금지 등과 같이 우리나라 기술의 진보를 막는 안타까운 사건 -> 대상 확장